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SPRING

Medical Essay

봄철 피부질환과 피부관리

'드르릉~컹' 수면무호흡증, 심장질환·성기능장애 부른다

쥐어짜는 듯한 흉통 반복... '허혈성 심장질환' 놔두면 큰 일 난다

어깨가 아플 때 하는 운동

건강한 다낭공팔을 위한 생활습관 10계명

첨단기술을 통한 전인치유, 다빈치Xi



Care & Love

이강대 교수·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SPRING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3년 3월
편집인 옥철호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T.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 04 **비전**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6 **들으라 행하라** 구원 목사·김해 동서남북 교회
- 08 **필리핀 뚜게가라오-라궁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최정원 치과위생사

Medical Essay

- 10 **봄철 피부질환과 피부관리** 박종빈 교수·피부과
- 12 **수면무호흡증, 심장질환·성기능장애 부른다** 김주연 교수·이비인후·갑상선·두경부외과
- 14 **쥐어짜는 듯한 흉통 반복... '허혈성 심장질환' 놔두면 큰 일 난다** 허정호 교수·심장내과
- 16 **어깨가 아플 때 하는 운동** 이재현 교수·재활의학과
- 18 **건강한 다낭공팔을 위한 생활습관 10계명** 정연순 교수·신장내과
- 22 **첨단기술을 통한 전인치유, 다빈치Xi**

Culture & Life

- 24 **꽃보다 햇살..... 어쩌다 산행 장유 용지봉** 노경만 산·여행작가
- 28 **잘 가요, 우리 엄마!** 김희자·수필가
- 31 **원목실 추천도서**
- 32 **호흡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 질병관리청**

Kosin Inside

- 34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 39 **포커스뷰**

Donation

- 44 **진료시간표**
- 48 **KOSin 사랑in**

비전 Vision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비전(Vision)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목표와 미래상을 담은 실제적인 희망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며 적극적인 태도와 역량으로 현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리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비전은 “환자중심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병원, 존경받는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병원, 최고의 구제 병원”입니다.

이 비전은 병원의 미래에 대한 지도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의 삶과 목표를 이끌어 줍니다. 비전은 우리의 정체성,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는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복음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고 수용하며 함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복음병원의 현실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역동적인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비전입니다. 주어진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꺾임치 않아야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병원의 비전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필요로 합니다. 이유는 우리 비전의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모든 복음가족들이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모든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70년의 복음병원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아

야 합니다.

로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병원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외쳤고,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복음병원이 꿈꾸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몸짓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몸짓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복음병원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륜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한 몸짓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장거리 운전을 경험했습니다. 1000km가 넘는 여정은 큰 부담이 되지만 출발을 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복음병원이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혁신된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며 최고의 구제병원이 되기 위해 그 꿈을 향해 오늘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복음병원의 재단이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고신대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에게 2000여 복음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차 한 잔의 행복’입니다.

비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비전은 한계를 초월하게 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설명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비에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꿈꾸는 비전이 있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음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꾼이 되어 섬김, 사랑, 헌신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은 현실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차 한 잔, 일주일에 차 한 잔, 한 달에 차 한 잔을 내일의 복음병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꿈꾸지 못함을 후회하는 내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더 뚜렷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날 지,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으로 온 세상을 향한 변혁의 태풍이 될 지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복음병원입니다. 에코델타 헬스 클러스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의 복음병원의 비전이며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복음병원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빈손이기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고,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하여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황하며, 경고가 없으면 백성이 방임하며, 그러나 규범이 있다면 백성이 생명을 얻는다 (잠언 29:18). 

들으라 행하라

 구원 목사 · 김해 동서남북교회 부목사

구약에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재차 명령하다’라는 뜻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원어 제목은 데바림(Devarim)입니다. 그 뜻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전부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책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그 대상은 광야 2세대이며,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코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열흘이면 오고도 남는 거리였는데 말이죠. 신명기 1장은 열 하룻길과 사십 년이라는 기간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이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후 모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고별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앞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중심은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어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문장에서 신명기를 이끄는 핵심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들어라” 듣는 것. 우리에게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향해 말할 때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총 세 가지로 말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선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 확립, 그렇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계대적인 신앙교육 요구와 방법입니다. 이 말은 너희만 믿고 그치지 말고 너희 자녀와 온 집(세대)에 동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전수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이스라엘아, 들으라”에서 “들으라”라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는 언제나 여기, 바로 지금!(here and now)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듣고 지켜 행하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모세를 통한 이 외침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현재 2023년이나, 심지어 앞으로의 나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신명기 6장 4~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나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듣고 행하는 살아 숨 쉬는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3년, 우리의 움츠러든 몸과 영혼을 향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아 들으라” 

필리핀 뚜게가라오-라궁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최정원** 치과위생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병원 게시판을 지나치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의료 선교봉사 모집 포스터.

그것을 본 순간 들었던 생각은 ‘어? 나 이거 가야겠다’였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결정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과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뚜게가라오-라궁 11차 안과선교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총 6박 7일로 진행되었습니다. COVID 19로 인해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우리의 선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준비되어 졌습니다. 우리 선교팀과 더불어 참가하는 팀원들의 교회, 선교지 현지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 막막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준비 과정 중에 경험했습니다.

선교팀에 참가신청을 할 때는 설렘 가득한 마음이었으나 막상 출발이 다가오니 처음 경험하는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뚜게가라오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걱정은 뒤로한 채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환영의 소리에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환영해주는 현지 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의 전심을 다한 하모니·퍼포먼스는 제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벅찬 감동도 잠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의료선교팀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음이 조급해진 저희 팀은 곧바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접수팀, 수술팀, 약제팀, 진료팀, 치과팀으로 나뉘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약제팀과 치과팀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약제팀은 말 그대로 진료 후 처방에 따라 알맞은 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약을 준비해갔지만 밀려오는 환자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약제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팀을 만나기 위해 며칠을 걸어서 오는 환자들도 있었으나 약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저도 고맙다며 밝은 인사를 건네오는 현지 환자들을 마주 할 때에는 더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흔한 약들이 없어서 그간 고생했을 환자들을 떠올리니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금토 양일 간의 진료를 마치고 주일에는 현지 선교사님을 따라 라궁으로 넘어가 주일에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궁에는 총 18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중 규모가 큰 제2라궁교회에서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라궁에서 약제팀이 아닌 현지 치과의사와 같이 호흡을 맞췄고,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스케일링과 환자별 구강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이 오랫동안 머물 수 없어 1회성 진료만 제공해야 하는 점, 계속해서 밀려드는 환자 및 장비의 한계로 신경치료는 물론 간단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조차도 제공할 수 없는 점 등등 ...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의해 마지막 단계인 발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그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남은 시간동안 짧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정들이 끝나고 제 마음 속에 잠잠히 떠오른 단어는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몸은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휴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곳에 의료봉사라는 명목 하에 ‘주기 위해’ 온 사람이었으나 얻어가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곳의 사람들에게 치유와 섬김을 제공하게 하심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필리핀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쁨과 사랑으로 이 땅을 돌보아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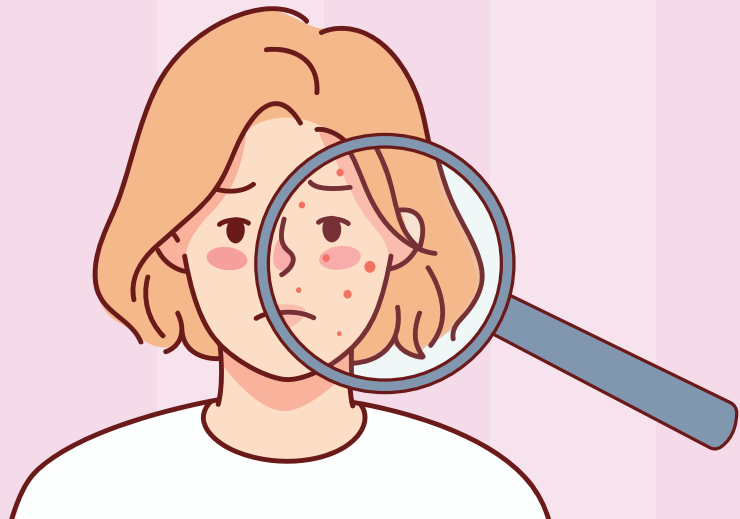
저는 선교기간 동안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저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궁에서 나서기 전, 튀긴 바나나를 몰래 먹고 있던 중 들려오던 찬송가 하나. 그 노래는 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생전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계셨던 걸까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던 할머니의 기도와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매 순간 저와 함께 계셨고,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이번 선교를 함께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이번 뚜게가라오-라궁선교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가깝게 다가와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채워주신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봄철 피부질환과 피부관리

 박종빈 교수 · 피부과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철에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꽃가루 등이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봄철 피부질환

첫째, 봄철에 강해진 자외선으로 다양한 광민감성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광민감성 피부질환인 다형광발진의 경우, 햇볕에 노출된 뒤 수일 내에 구진이나 물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발진이 노출 부위에 발생하여 7-10일 간 지속된다. 겨울 동안 햇볕에 노출되지 않던 팔이나 목과 같은 부위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에 자외선에 노출되면 새로운 피부 항원이 발생하여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두드러기의 한 형태인 일광두드러기도 봄철 자외선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데, 태양에 노출된 뒤 수 분 내에 두드러기가 나타났다가 수 시간 내 정상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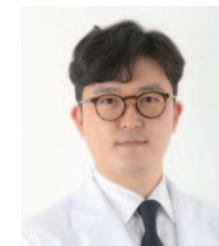
둘째, 다양한 색소질환 또한 봄철 자외선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주로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에서 대칭적으로 납작한 황갈색 반점으로 관찰되는 주근깨, 노인에서 흔하며 주근깨보다는 크고 어두운 갈색의 반점으로 관찰되는 흑자, 그리고 중년 여성에서 주로 뺨, 이마, 코에 갈색 반의 형태로 관찰되는 기미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얼굴에 흔히 발생하며 봄철 강해진 자외선에 노출되면 병변의 색이 진해지고 개수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하고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여 여러 알레르기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라고 하면 콧물과 재채기 같은 호흡기 증상과 눈의 결막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알레르기질환 또한 악화될 수 있다. 피부 알레르기질환의 대명사인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다양한 물질이 악화에 관여하는데, 대표적으로 봄철 꽃가루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피부장벽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봄철 건조한 날씨에 의해 피부가 더욱 민감해지고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 이외에도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두드러기와 같은 질환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봄철 피부관리

이러한 봄철 피부질환은 피부과에 내원하여 질환에 따라 알맞은 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환들이 봄에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다. 아래 봄철 피부관리 사항들을 잘 지킨다면 다가오는 봄에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일광차단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야외 활동을 하기 20-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햇볕 노출 부위에 바르도록 하며, 2-3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도포해야 한다. 유리창을 통해서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 머무는 날에도 도포하는 것이 좋다. 일광차단제의 효과는 SPF로 표시되는 경우가 흔한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SPF 15 정도면 충분하나 장시간의 야외활동을 할 경우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의복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의류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 얼굴의 보호를 위해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2)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 놓으며,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가장 먼저 손을 씻고 세수와 양치질을 해 꽃가루를 제거해야 한다. 외출 시 입었던 옷은 세탁을 자주 하고 의류관리기를 이용해야 한다.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고 실내 청소 시 물걸레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확인하여 위험 지수가 높은 날에는 더욱 꽃가루 회피에 신경 써야 한다.
- 3) 적절한 실내 온도(20-22℃)와 습도(45-55%)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잦은 목욕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이 좋다. 때수건 사용으로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약산성 저자극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보습제는 매일 바르는 것이 좋고 특히 목욕 직후에는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뒤 3분 내에 바르도록 한다. 



박종빈 교수 | 피부과
전문진료분야
피부종양, 알레르기 피부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드르릉~ 킁’ 수면무호흡증, 심장질환·성기능장애 부른다

코골이 심하다면 수면다원검사, 무호흡증 확인 땀 내시경 필요

 **김주연** 교수 ·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코골이는 수면 중에 코, 후두 등 상기도 구조물의 떨림 현상으로 생기는 반복적인 소리이다. 수면 중 상부기도의 근육이 느슨해져 기도의 일부분이 좁아지는데, 숨을 들이마시려고 노력할 때 좁아진 상부기도가 떨려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이다. 기도의 일부가 막히면서 떨리면 코골이 소리만 나게 되고 완전히 막히면 수면 중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이 발생하게 된다.

코골이 증상

직장인 A(남·50대) 씨는 심한 코골이 때문에 아내와 방을 따로 쓴지 오래됐다. 20년 전 코골이 수술을 받았지만 1~2년 후 다시 코골이가 심해졌다. 수년 전부터는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중인데, 최근 들어 밤중에 자다가 숨이 막히면서 깨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때에는 심장이 마구 뛰고 식은땀을 흘리며 두통까지 생겼다.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그는 중등도 수면호흡장애로 판명됐다. 이에 상기도(윗숨길)의 정확한 폐쇄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았다.

코골이의 원인

보통 코골이라고 하면 수면 중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수면 중 호흡장애의 시작을 알리는 몸의 신호일 수 있고, 일부는 이미 여러 합병증이 동반된 것을 대변하는 주요 증상 중 하나일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수면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코골이로 인한 질병

수면은 하루 동안 지친 육체와 정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코골이와 수면 중 호흡장애가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 1차적으로 수면에 장애를 받는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2차적으로 부정맥,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좌심실 부전, 폐 질환(폐성 고혈압, 폐성심, 호흡 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코골이는 당뇨병이나 녹내장을 악화하거나 유발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 관련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코골이와 수면 중 호흡장애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병원 검사

수면장애가 있다면 우선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 중 호흡장애 외 다른 질환이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에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확인되면, 비강(코구멍에서 목젖 윗부분에 이르는 빈 곳)에서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상기도의 공간 중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부위를 이비인후과적 내시경검사와 ‘약물 유도 수면 중 상기도 내시경’ 검사로 이상 부위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수술을 고려할 경우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상기도 폐쇄가 생기는 부위를 수술 전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기존 상기도 폐쇄부위 검사는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수면 때의 폐쇄부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또한 상기도 폐쇄부위가 움직이는 패턴으로 인해 한 곳이 아닌 여러 부위의 폐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할 부위를 특정하는 데 제한점이 많다.

하지만 ‘약물유도 상기도 수면내시경’은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면 상태에서 상기도의 역동적 변화를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이는 환자에게 수면약을 투여한 후 수면상태에서 굴곡형 내시경 장비를 환자의 코로 넣은 뒤 코에서부터 후두까지 상기도 폐쇄부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검사시간은 15~30분 정도이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수면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회복실에 있다가 귀가하게 된다.

치료 방법

수면다원, 약물유도 내시경 등의 다양한 검사결과를 종합해 양압기 치료, 구강 내 장치 또는 수술 등의 방법 중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진행한다. 또는, 미국 이비인후과 전문지에 소개된 ‘고신대병원이 개발한 구개 인두근 현수법(상기도의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도 수술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진행하기도 한다.

수면 중 호흡장애는 부정맥, 고혈압, 심장 및 폐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진료와 치료법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적극 치료하는 것이 좋다. 



김주연 교수 | 이비인후 두경부 갑상선외과

전문진료분야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성형 클리닉, 코피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쥐어짜는 듯한 흉통 반복… ‘허혈성 심장질환’ 놔두면 큰 일 난다

겨울 관상동맥 막히는 질환 빈번

 허정호 교수 · 심장내과

60대 남성 L 씨는 근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슴에 통증이 종종 생겼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증상이 몇 분간 이어지다가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았다. 그 외 머리가 어지러운 현기증도 간혹 나타났다. 병원 검진을 받은 그는 혈관이 좁아진 협심증으로 진단됐다.

허혈성 심장질환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겨울철 요주의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을 말하며,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등이 대표적이다.

유병률

허혈성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는데,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혈전에 의해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돌연사 원인 중 약 80%를 차지한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높게 나타난다.

증상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을 비롯해 식은땀, 구토, 현기증, 팔이나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 등이 주요 증상이다. 주된 증상인 가슴 통증은 협심증의 경우 주로 5분 이내에, 휴식 때는 사라지지만, 심근경색은 30분 넘게 이어진다.

치료 방법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가슴 엑스레이 촬영,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다. 근래에는 관상

동맥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환자 상태 및 중증도에 따라 약물치료,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우회술 등이 시행된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은 약물에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회복이 빠르고 치료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치료법은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수술을 말한다. 여러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거나 가장 큰 관상동맥인 ‘좌측 주간지’의 협착,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에서 권장된다. 좌측 주간지 혈관은 심장혈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 협착이 심한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은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은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과 달리 부분 마취로 시술해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은 장점이 있지만, 다발성 병변 혹은 여러 개의 혈관에 병변이 혼재해 재발 위험성이 높으면 수술 치료가 장기적 예후에서 좋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환자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고 필요할 때 중재시술을 하는 것이다. 가슴 통증이 반복해 나타나거나 갑자기 심해지면 전문의 검진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치료 후에도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좋다.

생활치료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등이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 혈압·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체중 조절, 금연 등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할 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만일 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허정호 교수 | 심장내과

전문진료분야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 클리닉, 고혈압 클리닉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어깨가 아플 때 하는 운동

 이재현 교수 · 재활의학과



요즘 들어 영상으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사람들은 어깨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들은 적절한 범위와 강도라면 어떠한 운동을 하든지 더 건강해질 수 있지만,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자칫 잘못된 운동을 할 경우 어깨를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하다.

회전근개 힘줄

어깨통증의 원인은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일 수 있다. 회전근개 힘줄에는 단순한 염증부터 부분파열 혹은 전층 파열이 생길 수 있다. 흔히 충돌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붓고 두꺼워진 힘줄 때문에 생기는 결과’에 가깝다.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정상 어깨 관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어깨질환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쉬운 예를 들어 우리는 설거지한 접시를 상부장에 넣고, 천장의 전구도 교체하고, 바쁠 땀 차 뒷자석에 물건을 던져 놔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 관절은 운동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 되었다. 이 활동성을 얻기 위해 어깨는 엉덩이의 고관절 같은 견고함을 희생하고, 마치 골프공이 얇은 티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불안정해 보이는 관절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 힘줄이다.

회전근개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팔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들어 올릴 때나 팔을 등 뒤로 보내는 동작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환자마다 증상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힘줄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속옷을 벗거나 화장실에서 손을 뒤로 뻗으려고 할 때, 밤에 누워서 이불을 덮으려고 끌어당길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국 특정 각도에서 힘을 쓸 때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전근개 손상의 초기 재활의 핵심은 회전근개를 동원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견갑골이 유연하고 튼튼하게 윗팔뼈를 따라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견갑골을 안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견갑골의 스트레칭 - 견갑골 주변근육의 강화 - 이후 통증이 거의 없는 회복기에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일련의 재활운동을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 한다.

오십견

다음으로는 오십견이다.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란 뜻인데, 이러한 별명이 생긴 이유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50세에 많이 생기는 어깨 질환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결국 관절막에 염증성 구축이 생겨 초기의 심한 염증성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장애를 동반하는 질병이다.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 유착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성 전부 강직이 가장 올바른 용어에 가깝다.

회전근개 질환과 구별해 볼 수 있는 증상은 관절막이 어깨 전체를 감싸고 있으므로 모든 방향으로 통증을 동반한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긴다. 특히 견봉쇄골인대라는 구조물 때문에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의 제한과 통증이 생긴다. 또한 통증은 주로 어깨 바깥쪽 즉 삼각근이 붙는 부위로 방사 되는데, 심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고 잠을 방해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분으로 돌아누울 수 없는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오십견의 경우에는 전범위에서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벽이나 책상에 팔을 대고, 원하는 운동방향의 반대로 몸을 움직여서 수동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스스로 시행해볼 수 있다. 다만, 증상에 따라 질병초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시행하고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점차 증상이 줄어들어 가면서 가동 가능한 관절 범위까지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회복기에는 운동의 시간과 강도를 점차 늘려 원래의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회성 건염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힘줄에 흔하게 발생하는 석회성 건염이다. 석회가 작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즉 석회에 의한 힘줄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체외충격파를 시행하면서 이화된 힘줄의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석회가 빨리 녹아내려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회전근개 힘줄손상과 반대로 회전근개를 초기부터 사용해서 운동을 시작해도 된다. 다만, 회전근개 손상이 같이 있다면 초기부터 회전근개를 사용하는 운동은 옳바르지 않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운동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석회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 약물치료,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석회를 깨고 뽑아내는 석회쇄적술을 시행해볼 수 있다. 다만 석회의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석회가 녹아내리진 않으면서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석회가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쇄적술이나 체외충격파를 시행하고 반응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증원인에 따른 적절한 재활운동치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어깨 통증이 없는 50대의 10명 중 3명에서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이 있었고, 그 중 1명은 전 층 파열이었다. 힘줄에 생기는 석회는 처음에는 1년이고 5년이고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어떠한 시점에 와서야 녹아내려 통증을 만든다. 다시 말해, 힘줄이 찢어지거나 석회가 들어있어도 어깨 통증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목의 문제가 어깨로 통증을 보내는 경우는 더 흔하다. 만약 어깨의 호전이 없고 회복경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내원하여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적절한 운동을 배운 후 자세를 점검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재현 교수 | 재활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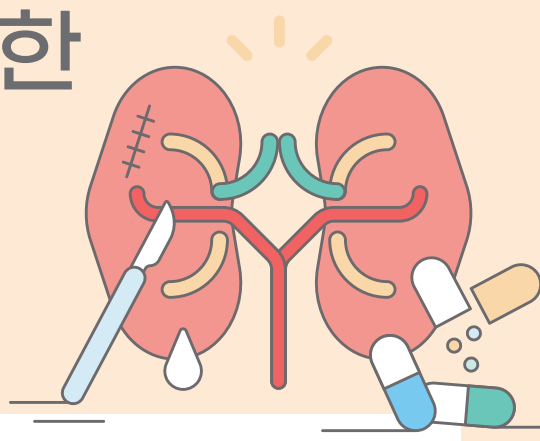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근골격계 및 스포츠 재활, 척추 및 관절질환, 어깨통증, 허리통증, 목통증, 외상성뇌손상, 삼킴장애, 호흡재활, 초음파유도 중재시술, 신경근골격 초음파, 척추중재시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외래

건강한 다낭콩팥을 위한 생활습관 10계명

 정연순 교수 ·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다낭콩팥 환우와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히딩크와 박지성”을 떠올립니다. 저는 히딩크, 환우님들은 박지성이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환우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는 코칭을 하구요, 우리 환우님들은 박지성이 된 것처럼 실제 경기장에서 달리며 골을 넣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건강한 다낭콩팥에 대한 생활습관’을 알기 쉽게 10계명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 만성콩팥병 1~3단계의 다낭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며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건강한 다낭콩팥을 위한 생활습관 10계명

1

충분한 물
마시기

2

목표혈압
따라 잡기

3

다낭콩팥에 좋은
밥상 차리기

4

카페인과
멀어지기

5

술·담배
줄이기

6

날씬하게
살기

7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하기

8

다낭콩팥에 안전한
운동하기

9

스트레스와
거리두기

10

치료의 적극적
참여자 되기

1. 충분한 물 마시기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 마시기이다. 몸에 약간만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도 우리 몸의 뇌하수체에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물부족을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낭콩팥에서 낭종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될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된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는 것은 갈증이 없어도 물을 마셔서 소변색이 투명한 노랑으로 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통상 체구에 따라 하루 2~4리터의 물마시기(소변량이 하루 2리터 이상이 되도록)를 권하며, 물 마시기는 습관화되어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알람을 맞추어 마시는 것도 좋다.

2. 목표혈압 따라 잡기

혈압조절이라고 하면 ‘의사가 혈압약을 잘 처방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혈압약 처방보다는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 혈압약은 혈압조절을 위한 조치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낭콩팥병 환자의 목표 혈압은 다른 환자들과 다르다. 50세 미만이면 신기능이 60점 이상이면 (사구체여과율 $\geq 60\text{mL/min}$) 110/75 mmHg 이하, 그 외의 경우는 130/80 mmHg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혈압을 조금이라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지속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이 병행되어야 한다. 집에서 측정한 혈압결과를 의사에게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혈압약을 잘 처방받을 수 있다. 내원 시 혈압 측정된 자료를 스마트폰 앱에 잘 입력하여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3. 다낭콩팥에 좋은 밥상 차리기

식사에 관한 건강 팁들은 많지만, 환자들의 콩팥상태는 제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식사에 관한 내용은 자신에게 적용하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식사의 기본은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다. 말 그대로 고혈압을 중지시키는 식단을 말한다. 이 식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염식사이다. 저염식사는 통상 소금량으로 하루 5g 이하로 먹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다.

실천이 어려운 저염식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생활의 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국, 찌개, 조림, 외식은 특별한 일 아니면 삼가고, 여러 종류의 소스를 만들어 찍어 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저염식사는 심한 다낭콩팥병 환자-톨보탄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이뇨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되는 방법이다.

DASH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다낭콩팥병 환자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결론은 본인의 콩팥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환자들이 다른 매체들을 통해 ‘콩팥이 좋지 않으면 채소나 과일에 많은 포타슘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가지고 일체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낭콩팥병은 다른 만성콩팥병과 다른 특징들이 있다. 물마시기를 권유하고, 빈혈도 심하지 않고, 포타슘 조절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다. 초기 다낭콩팥병일 때는 비타민이나 항산화효소 등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된 채소와 과일이 도움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포타슘 조절능력이 좋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채소와 과일의 드시는 양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4. 카페인과 멀어지기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나중내 나액의 분비를 증가시켜 나중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카페인 섭취가 많을수록 나중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낭콩팥병이 있든 없든 통상 하루에 3~4잔 이상 마시는 것을 과도한 섭취라고 부르니 가급적 카페인 음료를 이 기준보다 훨씬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커피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 달라서 음료를 마실 때 반드시 카페인 양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 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기도 하고, 다낭콩팥에 더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하든지, 하루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그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린다. 그 외에도 녹차,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 커피보다 많은 카페인 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술·담배 줄이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줄이고 고혈압을 유도하여 콩팥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 만성콩팥병의 위험이 있는 환자가 매일 한 갑씩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경우, 말기 신부전의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한다. 과음 역시 콩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음주를 하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출혈성 뇌졸중 위험은 비음주자에 비해 약 6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경우 만성콩팥병의 위험은 약 4.9배 증가한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가능한 금주하는 것이 좋다.

6. 날씬하게 살기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건강한 체중을 언급할 때 BMI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이며, 18.5~24.9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체구를 차체에, 콩팥을 엔진에 비유를 한다면 '만성콩팥병이 있는 환자가 비만이라는 것'은 마치 대형차 차체에 소형엔진이 장착되는 것과 유사하다. 엔진은 소형차인데 차체가 대형차이면 오르막길을 달릴 때 너무 힘든 것처럼, 우리 몸이 아플 때 콩팥기능이 감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엔진을 늘리진 못하니 차체를 줄여야 한다.

7.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하기

콜레스테롤에는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있다. 특히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신기능저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낭콩팥병이 있는 동물 모델에게도 비슷한 성적을 보인 연구 결과가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기 위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줄여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8. 다낭콩팥에 안전한 운동하기

운동은 효과적인 혈압조절과 체중조절에 꼭 필요하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덕분에 여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낭콩팥병 환자는 콩팥이 있는 옆구리나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축구, 농구, 복싱, 유도, 태권도와 같은 운동은 콩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을 해야 할 때는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패드가 필수적이다. 반복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스피닝, 승마, 장시간 산악자전거 타기 등도 혈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추천할 만한 운동에는 수영, 골프, 자전거,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 등이 있다. 허리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콩팥비대로 인한 요통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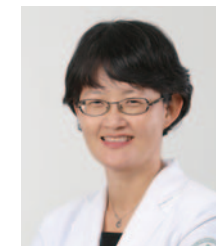
9. 스트레스와 거리두기

만성질환의 스트레스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나중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중의 성장은 또 다시 이러한 호르몬 분비를 가속시키게 되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호르몬분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잊고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도와주는 방법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요가, 음악듣기, 책읽기, 핫터브 등 본인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다낭콩팥병 환자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변에 알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잘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0. 치료의 적극적 참여자 되기

환자 스스로가 다낭콩팥병에 대한 교육정보를 공부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본인이기 때문이다. 공부하면서 자신이 치료의 주체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근 급속진행성 다낭콩팥병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적용을 받게 되면서 일차 치료제인 톨맵탄치료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치료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 많다.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 내 일반인을 위한 코너를 이용하면 다낭콩팥병 치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정보들을 공부하고 주치의에게 꼭 물어본 후,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권장한다. 



정연순 교수 | 신장내과

전문진료분야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클리닉	

첨단기술을 통한 전인치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018년 고신대병원에 도입된 로봇수술기 '다빈치Xi'는 각종 암을 비롯해 담낭·비장 절제술, 골반장기 탈출증 등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다빈치 로봇 수술기(da Vinci® Surgical System)는 로봇 수술 시스템 중 최초로 FDA승인을 받았으며 전세계에 3,600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3세대인 다빈치Si보다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된 4세대 다빈치Xi는 대형절개 대신 1cm의 구멍에 로봇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하기에 보다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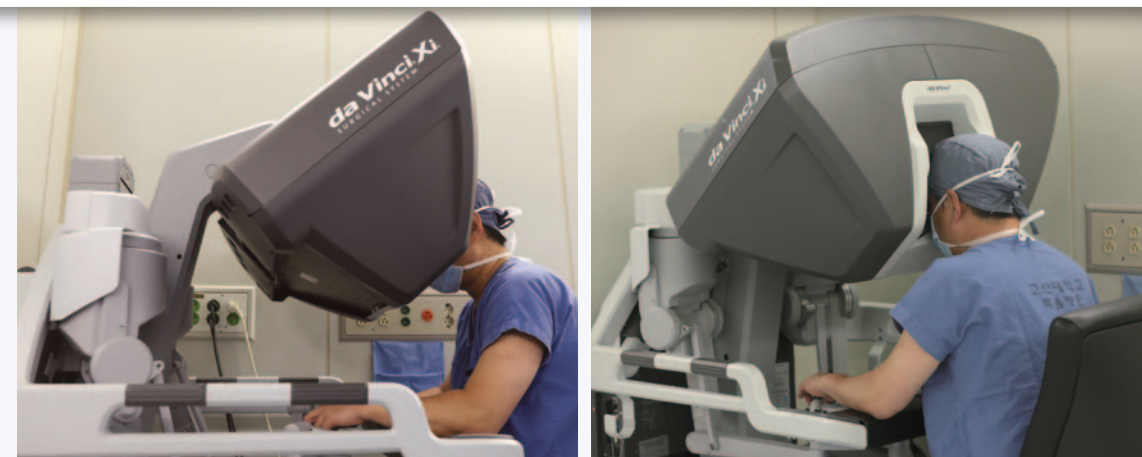
다빈치Xi 로봇수술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진행이 되지 않으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수술 조작은 의사의 직접적인 입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의사는 다빈치 서전 콘솔에 앉아 인체 내부를 확대한 3D 영상을 보며 직접 수술기를 조작하는 것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때 로봇수술기와 수술의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에 임해야만 첨단 로봇 수술의 이점을 톡톡히 발휘할 수 있다.

고신대병원 유방외과 김구상교수는 이러한 로봇수술의 이점을 잘 활용하여 지난 12월 3분기 로봇유방수술건수에 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작년 국내 기준 로봇유방수술 집도 횟수로는 압도적인 1위이며, 고신대병원은 로봇유방수술을 2번째로 많이 집도한 병원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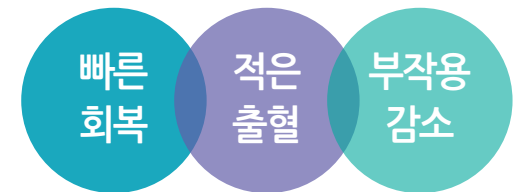
개인집도 1위(22회)	국내 로봇유방수술 병원 TOP2
고신대병원 김구상 교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병원은 현재에도 유방외과를 비롯하여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에서 다빈치Xi를 활용한 로봇수술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질환을 정밀하게 치료하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 기반의 진료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교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최신화된 로봇수술기 도입을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수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다빈치Xi



첫째, 신속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빈치Xi 기구 설치 과정인 '도킹(docking)'을 약 1분 30초 만에 완료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빈치 시스템은 관절이 있는 5-8mm 소형기구와 3D 고해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고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기구 운동 범위의 제한이 없어 로봇 위치의 변경없이 넓은 부위를 수술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팔의 길이와 가늘어진 팔의 굵기, 10배 이상 확대된 3차원 영상시스템은 최소 절개 수술이 어려웠던 인체의 복잡하고 깊은 부위까지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고난이도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봇수술센터 의료진

유방외과	990-6110
김구상 교수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갑상선암, 고주파열 치료, 로봇경구갑상선수술
비뇨의학과	990-5077
김택상 교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교수	결석, 로봇수술
대장항문외과	990-6181
이승훈 교수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산부인과	990-6117~8
김원규 교수	부인암, 종양,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윤향규 교수	모체태아의학, 고위험임신, 조산, 로봇수술, 산부인과 질환 로봇수술센터
김은택 교수	부인 질환, 부인 종양, 부인 암, 로봇수술, 내시경 수술
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990-6113
김구상 교수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로봇경구갑상선수술
양송이 교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경구갑상선수술
이지은 교수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경구갑상선수술, 갑상선최소절개수술

꽃보다 햇살…… 어쩌다 산행 장유 용지봉

 노경만 산·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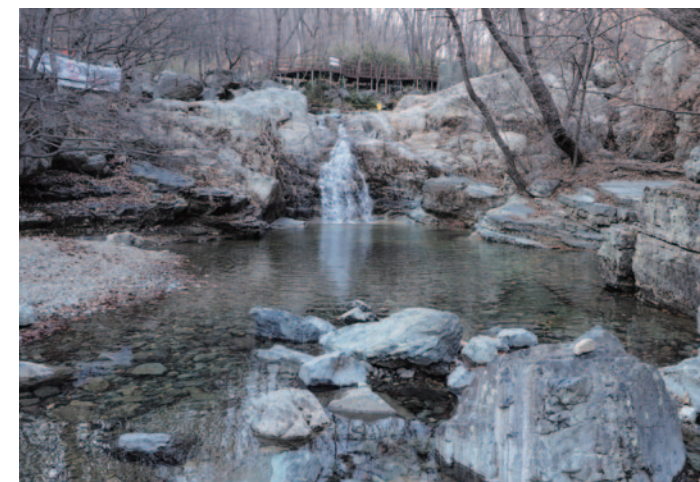
어쩌다보니 용지봉을 가게 되었다.

입춘이 지난 지 오래지만 날씨는 여전히 사늘한 표정으로 봄을 시샘하기에 여념이 없다. 불모산을 가고자 작정하고 나선 길이었지만 산을 오르던 중 세차게 부는 바람에 등 떠밀려가다 우연히 바라보게 된 봉우리 하나. 그곳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다. 멈추지 않는 꽃샘바람 너머 비스듬하게 그어진 사선의 능선 위에 작은 정자 한 채가 그려진 풍경. 그 위 하늘로부터 파랗게 햇살 내리는 용지봉. 그래서 용지봉으로 길을 바꾸고 말았다.

용지봉은 높이 723m로 김해시 장유면과 진례면, 창원시 불모산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원래는 용제봉이었다고 한다. 용제는 龍祭와 龍蹄의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龍祭는 비를 관장하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라는 의미로 불린 이름으로 조선시대에 기우단을 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龍蹄는 진례면 신안 무송의 용소에서 용이 승천하다 잠시 쉬었다 간 발자국이 바위에 남아 있다는, 용 승천설화와 관련된 이름이라고 한다. 용지봉이라는 이름은 용제봉에서 자음이 변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름일 것이라는……, 정상에는 제단 옆에 그 유래가 잘 설명된 비석이 서 있다.

설화와 화두가 가득한……

용지봉은 지리산 영신봉에서 뻗어온 낙남정맥 길목의 한 봉우리다. 최근 많은 산객들 사이에서 많이 화자되고 주목받는 산이기도 하다. 낙남정맥에 대한 엇갈린 해석 때문이다. 무학산 대암산을 지나와 신어산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낙남정맥에 반하여 <신낙남정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새로운 루트에 대한 화두이다. 여기 용지봉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대신 바다가 있는 남동쪽으로 방향으로 곧장 나아가, 불모산-화산-굴암산-너더리고개-두동고개-보배산-장고개-봉화산을 지나 부산 강서구 녹산수문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신낙남정맥>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루트는 기존의 낙남정맥에 비하여 고도가 높아 그 기세가 쉬이 꺾이지 않고 능선의 줄기 또한 뚜렷하다. 무엇보다 그 주맥은 바다에서 끝나야 한다는 산경표의 원칙과 맞아 어쩌면 이 길이 올바른 낙남정맥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공감의 댓글 하나 남기고 싶다. 엄지 척 이모티콘과 함께…….





최근에는 용지봉을 올랐다가 상점고개와 불모산을 지나 바다로 달려가는 신낙남정맥을 종주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

봄이 완연해지면 상점고개로 내려갔다가 불모산을 올라 노을전망대에서 남해바다를 건너오는 계절을 마중하여도 좋다. 그즈음이면 웅산을 넘어 시루봉으로 가도 좋고, 안민고개를 지나 장복산을 올라도 좋다. 어느 쪽이든 진달래와 벚꽃이 만발한 꽃길일 것이다.

용지봉으로 가는 들머리는 보통 장유폭포가 있는 대청계곡 입구이다.

대청계곡누리길을 따라 장유폭포를 지나 오르다보면 목재 택이 끝나는 즈음에서 장유사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도로를 따라 계속 걷다가 삼거리에서 입도로 길을 잡아 전경부대 갈림길 쪽으로 올라도 된다. 계곡입구에서 좌우로 능선을 타고 둘러서 가는 오름길도 있다. 더러는 좀 더 쉬이 오르는 방법으로 장유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장유사로 바로 가기도 한다.

장유사에서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짧지만 제법 가파르게 용지봉으로 바로 오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각 앞을 지나 산을 둘러 건다가 계곡입구 갈림길을 만나서 남봉으로 오르는 길이다. 남봉으로 난 길을 따라 걷는데 바람이 제법 세차게 불어댄다. 손이 시릴 정도다. 줄지어 선 진달래나무에는 어느새 꽃망울이 맺혀 웅기종기 모여 봄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도 바람은 그들을 시샘하여 부는 것이 분명할 터이다.

갈림길에서 약 5분이나 10분 정도만 오르면 첫 번째 조망터가 나온다. 사방이 탁 트여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대고 길은 잠시 동안 능선을 따라 암릉으로 이어져 있다. 애초에 가려던 불모산을 바라보니 햇빛을 등지고 서서 봉우리가 희미하고 그늘이 져 있다. 아주 추워 보인다. 뒤를 돌아보니 아스라한 사선의 능선 위에 작은 정자가 그려진 듯 서 있는 봉우리가 보인다. 가득히 내리는 햇살 아래 아주 따스해 보인다. 용지봉이다.

암릉 산행을 잠시 하고나면 풀무지언덕이라 부르기도 하

는, 그 이름도 참 어여쁜 남쪽의 봉우리에 도착한다. 그 이름처럼 정겹고 따스한 언덕배기를 닮은 곳이다. 바람에 사정없이 나부끼던 몸을 햇살이 감싸준다. 불모산 너머 안민고개로 이어진 능선의 꽃소식이 궁금하긴 하였지만, 꽃보다는 햇살을 따라 걷기로 마음을 바꾼다.

꽃샘바람 저편 햇살 내리는

용지봉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정표가 알려주는 바로는 0.8km로 잠시 내림길을 걸어 장유사에서 올라온 쉽터가 있는 갈림길을 지나고 다시 잠시 오름길을 걸으면 용지봉에 도착한다.

723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어찌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일지도 모를 용지봉. 그래서 어찌면 승천하던 용이 잠시 머물다 갔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찌면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찌면 햇살이 이렇게 넘치도록 가득한 것이 아닐까? 정상에는 지금도 기우단이 모셔져 있고, 정상석과 함께 용지봉의 설화가 담긴 유래비가 서 있다. 정상 바로 아래에 자리한, 아까 건너편에서 그려진 듯 보이던 한 채의 정자 너머로는 김해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정상의 조망은 가히 환상적이라 해도 좋을 만지 사방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풍경을 선사한다. 굴암산 불모산으로 이어진 능선 옆으로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창원시와 대암산 아래 진례면과 장유면, 그리고 김해평야와 그 너머

낙동강과 부산시까지 파란 하늘아래 그 하늘빛을 닮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가없는 풍경이다. 용지봉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따스하고 몽클한 순간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몽게몽게 지나간다.

하산은 이정표에 3.3km로 적힌 대청계곡 쪽으로 길을 잡는다. 정자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능선을 타고 한참을 가다보면 문득 편백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속의 갈림길을 만난다. 여기에서 장유사 1.4km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잠시 내려가면 임도가 나오고, 장유사 쪽으로 임도를 걷다보면 도로와 만나는 삼거리에 다다른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내리막을 걸어야 한다. 한참 후 다시 장유사로 오르는 지름길과 만나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부터는 계곡을 따라 가는 대청계곡누리길을 물 흐르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걸어서 장유폭포를 지나 산행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꽃보다 햇살을 택했던 오늘의 어찌다 용지봉 산행. 지나고 보니 햇살보다 하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서 더 좋았던 것이 아닐까? 

도시철도 하단역 버스정류장에서 200번이나 201번 버스를 타고 장유 중앙하이츠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 그곳에서 창원으로 가는 59번 버스를 타고 대청계곡입구에서 내리면 산행을 할 수 있다. 장유 시내에서 택시를 불러 장유사까지 갈 수도 있는데, 길이 가팔라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잘 가요, 우리 엄마!

 김희자 수필가



한 장 남은 달력을 펼치자 강추위가 몰아쳤다. 남해에선 때 이른 한파였다. 엄마를 근 다섯 해 동안 모셨지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시고 생을 이어왔다.

날이 차다며 두꺼운 이불을 내어드렸지만, 사시사철 당신이 덮는 이불만 고수하여 언성이 높아졌다. 노상 덮는 이불이라 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이 소천한 후 알았다. 그 이불은 애지중지한 장손이 어릴 적에 덮던 것이었다고. 연유를 알 수 없었던 나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성을 냈다. 아흔한 살이었던 엄마는 두 해 전부터 귀가 철벽이 되었고, 중풍으로 어휘를 구사할 수 없어 소통마저 불가능했다.

동장군이 몰려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불 한 채를 더 드리며 둘 다 덮으시라고 했다. 한데 어느 날부터 기침을 했다. 혹시나 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었다. 열이 나지 않고 거동까지 어려워 집에서 관찰했다. 주치의에게 약을 처방 받아와 챙겨드렸지만 차도가 없었다. 입맛을 잃었는지 식사량도 점점 줄었다. 겁이 덜컥 났다. 여태 엄마는 거동이 어려웠을 뿐 밥을 남긴 적은 없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만 있으면 그릇을 푹딱 비웠다.

약을 드셔도 가래 끓는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입원 좀 하자며 권해도 병원에는 아니 가시겠다고 고집했다. 이대로 가다간 폐렴이 오겠다 싶었다. 피붙이들과 의논하여 입원 시키기로 했다. 병원에 가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니 나는 음성인데 엄마 키트에는 붉은 선 두 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어머니를 어떻게 병원으로 모시나. 궁리 끝에 119에 전화를 걸었다. 도움을 청했더니 구급차가 기꺼이 달려왔다. 희생을 감수하며 달려와 주어 늘 고마운 사람들. 내가 엄마를 봉양하며 부른 세 번째 구급차였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엄마를 침대에 눕혀두고 병원을 나서는 데 눈물이 쏟아져 중심을 잃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

를 하라는데 우리 엄마는 이겨낼 거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터벅터벅 병원을 나서는 데 찬비가 내려와 가뜩이나 무거운 어깨를 두드렸다. 수면 부족으로 몸이 휘청거렸지만,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난 엄마 끓여드리려고 불러둔 녹두로 죽을 쑤어 울먹이며 먹었다. 까끌까끌한 목구멍으로 녹두죽을 꾸역꾸역 삼켰다.

며칠 뒤, 밤새 서늘이 내려 마당을 뒤덮었다. 눈이 녹아들 무렵 병원에서 호출했다. 주섬주섬 옷을 꺼입고 병원에 당도하니 의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며 췌기를 박았다. 그래도 올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혼잣말로 중얼댔다. 그날 이후 엄마는 식음을 전폐했다. 곡기를 끊은 엄마는 영양제와 산소의 힘을 빌려 이승과의 연을 이어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올 것이 오는구나 싶었다. 피붙이들은 떠나보낼 준비를 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못 해준 것만 생각나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루는 생각이 많아서 잠 못 들고, 하루는 지쳐서 푹아떨어졌다.

허둥지둥, 심란하게 연말연시를 보냈다. 병문안도 쉬이 허락되지 않는 시절이 한탄스러웠다. 까마귀는 매일 전봇대에 앉아 울어댔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날마다 시간을 죽였다. 그런 와중에도 자식이 가면 손을 꼭 붙들고 실눈을 떴다. 그러기를 열흘. 희망이란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섰다.

차갑던 날씨가 께이고 포근한 날이 이어졌다. 가시더라도 땅 차지 않은 날에 떠나길 소원하며 텅 빈 하늘만 바라봤다. 어떤 날은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고, 어느 날엔 틀에 갇힌 생활에서 자유로워져서 홀가분했다. 그러다가도 엄마의 생이 스쳐 갔다. 구십 년을 지난하게 살아오신 조선의 어머니. 당신의 생애를 너무 잘 알기에 봉양하러 고향으로 내려오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꽃다운 열여덟 살에 숙명처럼 혼인했다. 가마 타고 무지개 재를 넘어 다랭이마을로 시집과 책임을 완수

했다. 장손 아내로 산 시간은 인고의 세월이었다. 농사짓고 길잡하고, 두세 살 터울로 구 남매 낳아 셋을 잃고 기르느라 절 지나고 해 가는 줄 몰랐다. 시집살이와 노동으로 인해 안짱다리가 되고 병을 얻었다. 병원으로 가시기 나흘 전까지 엉덩이를 밀고 화장실에 가셨다. 죽을힘 다해 몸을 일으켜 아버지께서 달아주신 봉을 붙잡고 화장실에 들어섰다.

그래도 마지막 생은 다들 호강하신 거라 했다. 팔십 초반에 중풍을 얻어 아버지의 수발을 받다가 막내딸 돌봄을 받으며 집에서 지내셨다. 젊은 날 갖은 고생과 수모를 겪어도 우릴 버리지 않고 곳곳하게 살아주신 엄마였다. 일심(一心)이라는 이름처럼 마지막까지 똥 수발시키지 않은 강단 있는 분이셨다.

입원 보름째 되던 밤, 남동생은 전화를 걸어와 그동안 고마웠다고 했다. 만일 엄마가 회복하시면 누나가 좀 더 고생해달라며 부탁해서 그러겠다고 통화를 끝냈다. 하나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순간, 가슴이 쿵하며 내려앉았다. 어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전갈이었다. 심장이 떨려서 움작 못했다. 장남인 동생 내외가 급히 달려가 가슴이 식지 않은 엄마의 손을 붙잡았다. 휴대전화로 아들 딸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려주니 마지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다. 엄마가 떠나시기 전날, 유난히 눈물이 나서 온종일 울었다. 안방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고, 못 해 드린 게 한이 되어 가슴을 쳤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두려웠을까.



하지만 우리 엄마다웠다. 자식들 수고 덜어주려고 늦은 밤에 떠나시고, 장례식 날이 소한인데도 봄날같이 따스했다. 엄마가 쌓은 은덕으로 소한 추위마저 물러났다. 고향으로 오는 운구차에 몸을 실었지만 평안했다.

한 줌의 재가 된 엄마를 모시고 고향으로 오던 날, 무지개 마을 외가택에 들렀다. 당신이 태어난 집 대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다랭이마을로 왔다.

입원 당시, 뒷집 엄마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었다. 한창 농사지를 때 부지런하다 못해 남의 집 일까지 걱정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셨다. 밤중에 비가 내린다고 하자 주인보다 먼저 들로 나가 나락을 거두어준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사셨다는 엄마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이제 엄마는 아버지의 곁에서 영면에 드실 것이다. 평안히 쉬시라며 두 손으로 흠을 뿌리고 봉분을 쓰다듬었다. 슬픔보다는 안식에 드실 엄마를 위로하며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들이 마음을 다하며 소리 내어 울먹었다.

“잘 가요, 우리 엄마!”

삶이 곧 꿈꾸기였던 나. 울타리였던 엄마마저 떠나고 고향 집에 홀로 남았다. 이젠 곁에 아무도 없지만 조상 집 잘 보존하는 것이 도리이며 나의 뜻이다. 죽는 날까지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이곳. 어디에도 가지 않고 마음의 의지처인 터에 내 뼈를 묻을 요량이다. ♡



원목실 추천도서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전대진 지음 | 넥서스CROSS |
2022년 02월 10일

책소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 기아대책희망대사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는 저자가 6년간 기록한 예수동행일기를 엮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일이 많은 저자가 예수님과 동행한 내용을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는, 받은 은혜 자체를 기억하기 위함도 있지만 혹여나 살아낸 일에 살을 붙여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려는 일종의 자기검열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친 곳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대부분 거기서 그치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저자는 목사님께 감사예배를 요청 드린다. 큰 사고였지만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사고를 통해 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 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 곳곳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

[출처: 알라딘]

저자소개 | 전대진

‘살아라’는 설교가 ‘살았다’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 애쓰는 ‘살쟁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출처: 예스24]



돈은 중요하다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 클라이브 림(Clive Lim) 지음 |
백지윤 번역 | MPI |
2022년 10월 11일

책소개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소유가 곧 권력이 되는 돈.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돈 역시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동시에, 돈은 영혼의 바로미터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누누이 가르쳐 왔듯이 돈은 문젯거리다. 그러나 또한 복이기도 하며, 심지어 성례전이 될 수도 있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표적 본문이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도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신다. 돈이라는 황제가 온 세상을 정복해 버린 현대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룩하고 가치 있고 슬기롭게 돈을 바라보고 사용할 것인가? 이 책은 돈에 관한 우리의 순례 길에 성실하고 등직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출처: 알라딘]

저자소개 |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의 일터신학과 리더십 명예 교수이자, 신앙과 일의 통합을 돕는 일터 변혁 연구소(Institute for Marketplace Transformation) 대표다. 맥매스터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철강 회사를 경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허드렛일부터 회계, 사무직 등을 두루 경험하였고, 목수 일을 배워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기도 했다. 30여 년간 목회자와 자비량 사역자로 섬긴 후,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평신도 신학과 생활 영성 분야를 가르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현실 세계, 무엇보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소개 | 클라이브 림(Clive Lim)

싱가포르의 투자 회사인 림 인터내셔널(Leap International)의 CEO이며, 싱가포르에 있는 성경 신학 대학원(Biblic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과 트리니티 신학 대학(Trinity Theological College)의 일터신학 강사, 리젠트 칼리지의 일터신학 객원 부 교수로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Chinese Entrepreneurship in Singapore: History, Faith & Culture가 있다.

[출처: 알라딘]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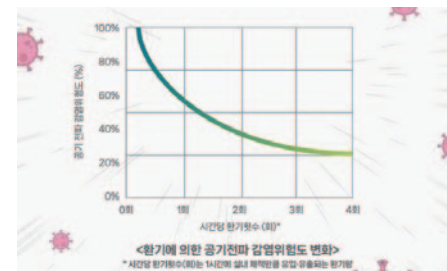
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

5 μ 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가라앉으나,
5 μ m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떠다니며
10m 이상 전파가 가능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환기 횟수에 따른 감염위험도 감소 효과

환기량이 많을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 환기 시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감소합니다. (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나, 3회 환기횟수 확보)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

-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는 필요
- 선풍기, 환풍기를 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

-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최대한 하고,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
- 건물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

공기청정기의 사용효과

-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실내 공기 질 개선효과
- 오염물질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지만, 감염원 농도를 현저히 감소
*공기청정기 약풍 가동 시 오염물질 제거비율 27% 대비
강풍 가동 시 오염물질 제거비율 86%로 증가
- 공기청정기는 자연환기, 기계환기와 같이 활용할 때 가장 높은 효과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
- 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
*일반적으로 집진필터(헤파필터)는 6개월~1년 사이에 교체,
제조사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시간이 길수록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준수하여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해요!”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내 환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혈액종양내과 이은미 교수

점점 증가하는 국내 암 발생률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죠. 원인은 다양합니다. 서구적인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의 생활환경 변화를 비롯해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암 발생률과 유병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은 이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질환이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 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혈액종양내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이처럼 중요한 암 치료에 있어 진단과 치료, 연구, 교육을 시행하는 핵심적인 분과입니다. 특히 예전보다 진단과 치료 방법이 다양해짐으로써 혈액종양전문의의 역할이 과거와 비교하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고신대복음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은미 교수 역시 임상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비결과 연구, 학회 활동을 통한 새로운 지식

을 바탕으로 새로운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수행 중입니다. 아울러 병원 내 타과 의료진과 함께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 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혈액종양내과

“환자분들이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우리병원이 오래전부터 암 전문병원으로 유명하잖아요. 강기려 박사님께서도 간암을 치료하셨고요. 저희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항암제와 연관된 일을 하는데, 확실히 옛날보다 환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암 치료제나 항암제의 종류도 좋은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환자들의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요. 위암은 소화기내과에서, 폐암은 호흡기내과에서 보는데 그럼 종양내과는 무엇을 치료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모든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종양내과는 각종 악성 종양(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로,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 질환을 다루는 혈액

내과와 고형 종양을 다루는 종양내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환자들을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 중 항암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암제라고 말하는 약이 들어가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후에 회복이 잘 된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 넘도록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지내는 환자도 있죠. 하지만 혈액종양내과 환자들에게는 '완치'보다 '전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까 말이지요.

내 환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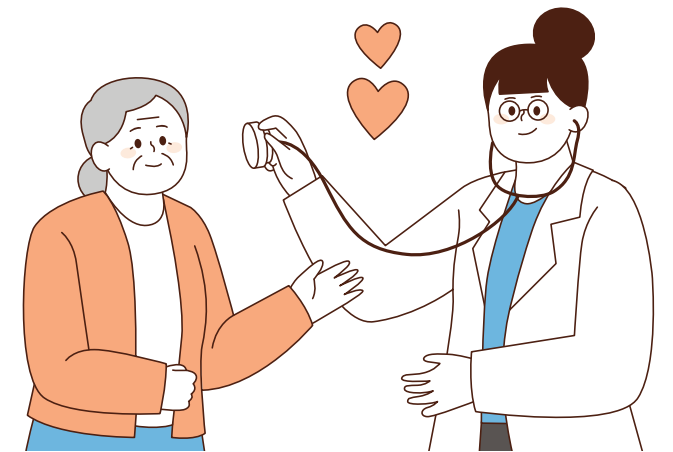
“힘든 상황에서 치료하고 좋아져서 일상생활도 가능해지는 경우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혈액종양내과 의사로서 보람이죠. 제가 전공의 2년 차일 때, 10대 후반 남자 환자였어요.

팝핀 춤을 추는 아이였는데 다리에 골육종이 생겨서 수술과 항암을 같이 진행했고 완치를 기대했죠. 그 환자는 수술은 서울에서 하고 항암은 고신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했는데 어느 날 백혈구가 떨어지면서 심한 바이러스 감염이 와서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무녀독남이라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힘들어하셨는데 점점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됐죠. 그 시점에서 하루만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잘 됐는데 전공의가 끝나고 와보니 폐에 전이 돼서 수술하고, 서울에서 펠로우를 하고 내려와 보니 이번에는 체장 전이로 또 수술했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이제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견뎌냈어요. 뇌 전이도 있었지만 그것까지 수술해서 지금 치료가 끝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외래진료 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는데, 어느덧 30대가 됐네요. 여러



번 재발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낸 그 환자 기억이 많이 나곤 해요.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는 환자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순간은 참 힘들지만, 신장생활이 힘겨운 순간들에 많은 위안을 줍니다.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죽음이란 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까요.” 여러 번의 고비를 이겨낸 환자와 곁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보호자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는 이은미 교수가 생각하는 명의의 모습은 ‘내 환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의사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의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들보다 환자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절대 작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병원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많은 교수님이 계시고, 저 또한 환자에게 더 관심과 애정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암처럼 큰 질병이 생기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서울의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면 고민할 여지가 없고, 또 지역병원과 비교하면 다양한 연구와 기회도 있어 장점이 있을 테지만 고신대복음병원에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의사와 진료 때문에 만나는 의사에게 위안을 받는 환자가 있습니다. ♡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환자의 상처에 진심인 가슴이 따뜻한 의사, 정형외과 김지연 교수

발(口)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몸 전체를 지탱하고 심장과 마찬가지로 피를 펌프질해 혈액순환을 돕고 있기 때문이죠. 발목 역시 발과 더불어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무게를 견디고 지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보행할 때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발과 발목 질환은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정형외과 김지연 교수는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 여의사 1호이자 국내에서 드문 정형외과 여의사 중에서도 족부·족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자입니다.

목수와 같은 일

족부(발)·족관절(발목)은 슬관절(무릎) 아래의 다리 하단부에서 발끝에 이르는 신체 부위를 말합니다. 몸을 지지하고 걸을 때 추진력을 제공하는 몸의 주춧돌에 해당하죠.

최근 선천성·후천성 변형과 기형, 골절과 탈구 등 외상, 관절염 등 퇴행성 변화, 각종 세균 감염, 혈관 질환에 의한 괴사, 근막과 인대의 염증 등 질환이 다양해지고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족부·족관절 정형외과에서는 이 부위의 질병과 외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쉽게 말하면 공사현장에서 목수들이 하는 일을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진료과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힘쓰는 일도 더 많고요. 예를 들어 남자 운동선수가 뼈가 부러져서 왔으면 부러진 뼈를 맞춰야 하니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수 밖에 없죠.”

현재 국내 의과대학 교수 중 정형외과 여교수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나마 족부·족관절 분야는 더 드문 편입니다. 뼈를 자르고 맞추는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는 여전히 여성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물론이고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는 환자는 상처가 찢어져 꿰매야 하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도 있지만, 생명을 다룰 정도의 다발성 외상 환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신대복음병원은 근골격계종양 환자까지 치료하다 보니 정형외과의 스펙트럼은 무척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쉽지 않은 결정

“처음부터 정형외과 의사로 꿈을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인턴 때 권영호 교수님 수술 보조로 들어가게 됐는데, 정형외과가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시고 잘 이끌어주셨어요. 족부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여자 정형외과 의사로서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장점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뇨발과 같은 상처 치료에 관심이 많고 족부를 공부하고 싶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당뇨 합병증인 당뇨발은 감염과 혈액순환 장애 등에 의해 발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겼을 때 치료가 무척 중요하지만, 정형외과 안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합병증에 의해 발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 형편과 상황일 뿐만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치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처에 진심인 김지연 교수는 아무리 험한 상처라도, 매일 회진마다 직접 드레싱을 하면서 상처의 냄새를 맡고 가까이 들여다보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의사

“환자들에게 더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조치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해야 하니까요. 특히 당뇨발은 절단을 막을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병원에 너무 늦게 오서거



2023 SPRING

나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있었는데 제 발가락처럼 생각하면서 치료했죠.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퇴원하셨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교수님을 따라 떠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는 김지연 교수는 그때의 마음을 여전히 잊지 않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목수와 같은 일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이 의사를 만나려고 3시간 거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손길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존재하심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김지연 교수가 생각하는 명의의 모습은 바로 ‘가슴이 따뜻한 의사!’라고 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의사! 제 좌우명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가슴이 따뜻한 의사이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의사가 진정한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슴이 따뜻한 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환자의 질병 뿐만이 아닌 주변 상황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 개인의 기여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손해인 거죠.

그렇기에 그 사회에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진료실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보답할 수 있는 의사로 말이죠.”

고신대복음병원 정형외과에는 오늘도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기다리는, 상처에 진심인 김지연 교수가 있습니다. 

Focus View

2022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 성료



고신대병원은 지난 23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사전 제출된 사례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5개 팀을 뽑아 병원 중앙로비에서 포스터 전시회를 가졌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회복실 신혜진 간호사의 'PACU환자의 투약과오 예방활동', 금상은 332병동 이경진 간호사의 '의약품 주입펌프 오류발생 예방활동'이 차지했다. 포스터 우수상에는 '내시경실 시술 부도율 감소를 위한 개선활동'에 대해 발표한 내시경실 김경미 수간호사가 수상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는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안전이기에, QPS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심평원 혈액투석·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고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제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혈액투석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과정 및 결과 측면을 종합해서 평가했다. 고신대병원은 종합점수 95.8점을 획득하여 종합점수 전체평균 84.5점을 크게 상회하는 성적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고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 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허혈성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전국 88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경승 병원장은 “의료진의 팀웍이 어우러져 혈액투석과 관상동맥우회술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질관리로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고 장기려 박사 27주년 기념식 LG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과의 특별한 인연 재조명 돼



성산 장기려 박사 2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식이 ‘빛이여라 사랑이여라’라는 주제로 12월 8일 (목) 오후 4시 30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개최됐다. 1부 추모예배에서는 고신교단 총회장 권오현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장박사의 제자이자 후학인 양덕호 원장(늘편한요양병원)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럭키그룹(LG의 전신)의 지원으로 장 박사가 어렵고 힘든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산학협동의 모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장기려 박사의 손자 장여구 교수(서울백병원)가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에 대한 소개 및 경과보고의 시간을 가졌으며, 고신의대에서 파견된 의료전교사들이 화상회의로 기념식을 함께하며 후학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오경승 병원장은 “올해 장기려 박사님 추모예배를 LG창업주와의 인연으로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장 박사님의 삶이 의료인의 사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2.12.09.]

Focus View

전미옥 작가 초청 '아름다운 날들' 그림 전시회 개최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미옥 미술작가를 초청하여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주제로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병원 중앙로비에서 환우와 가족이 함께하는 그림 전시회를 진행했다. 개인전시회 23회 국내외 단체전시회에 300여회 참여한 전미옥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이사, 울산미술협회 울산현대미술작가회 공감아트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고신대병원 전시회는 '선물', '오다 주웠다'를 비롯하여 전 작가의 대표 그림 30여점이 재능기부 형태로 전시되었으며, 헤드스파업체 '살롱드비송 닥터 탑'에서 환우들에게 선물을 기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미옥 작가는 "사랑 나눔으로 유명한 고신대병원에서 그림 전시회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그림전시 뿐 아니라 다양한 나눔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 작가님께서 뜻깊은 재능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작품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3.]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 '3분기 로봇유방수술실적 전국 1위 달성'



한국외과로봇수술학회의 7,8,9월 집계결과에 따르면 고신대병원 김구상 교수는 로봇유방수술 개인 집도 22회를 기록하여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우리나라 로봇유방수술 집도 횟수로 압도적인 1위이며, 고신대병원은 3분기 우리나라에서 로봇유방수술은 2번째로 많이 집도한 병원으로 집계됐다. 김구상 교수는 2021년 춘계외과초음파 학회 우수논문상, 서울국제중앙외과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대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항공전문의로 지정을 받기도 하는 등 국내 로봇유방수술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구상 교수는 "로봇유방수술은 집도의의 손이 미치지 어려운 부위에도 로봇팔이 닿기 때문에 안전한 절제를 할 수 있고, 10배 이상 확대된 화면으로 보면서 수술할 수 있어 섬세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 "로봇수술이 보다 보편화 되고 지방의 의료기관에서도 최고 수준의 숙련된 로봇수술 집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1.]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선정

-기관생명윤리평가 인증과 함께 융합의학의 새로운 치료법 진행할 예정



고신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대체 치료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희귀·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 등을 이용해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을 출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을 통해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이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현재의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함께 미래의료 핵심분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획득한 고신대병원은 그동안 쌓아온 바이오헬스, 융합의료를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2022.12.22.]

Focus View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가 고신사랑회에 성금전달



선수단 상조회는 지난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소아암 환자 후원회원 고신사랑회와 함께 소아암 환자 돕기 팬사인회 행사를 암 전문 병원인 고신대병원에서 진행해왔다. 행사는 환아들과 어울림마당과 식사를 같이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매년 해외전지훈련을 가기 직전의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왔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롯데 선수단은 방문 행사 대신 성금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고신사랑회에 전달된 성금은 소아암 환자 돕기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선수단 상조회 회장 안치훈은 "소아암 환아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신사랑회 김순아 회장은 "일년 동안 동료들과 모은 성금을 해마다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롯데자이언츠 상조회의 30년 우정과 모은 정성이 성탄과 연말을 맞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7.]

용돈으로 모은 100만원, 고신대병원에 기부한 초등학교 학생 화제



전남 순천 북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인 김지은 학생이 용돈으로 모은 100만원을 고신대병원에 기부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해 가을, 김지은 학생은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는 외할아버지 댁을 방문 후 고신대병원에 기부할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학생은 이전에 10세 생일을 기념하여 10년간 모은 용돈 100만원을 고신대복음병원에 기부한 바 있다. 장래희망이 의사인 김지은 학생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장기려 박사님과 복음병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고 길도 넓어져서 다니기 편했지만 예전에는 산동네처럼 다니기 힘든 동네였다고 들었다. 그런 환경에서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해 주신 장기려 박사의 삶이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벌써 두 번이나 기부를 한 것이 대단히 기특하다"면서 "앞으로 김지은 학생의 포부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훌륭한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교직원들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리메디! 리스타트!' 고신대병원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1월 31일 오후4시,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250여 교직원들이 함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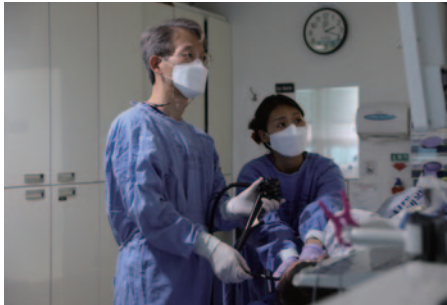


고신대병원은 1월 31일 오후 4시 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리메디(Remedy), 리스타트(Restart)'라는 주제로 미래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미래비전선포식은 고신대병원이 지방 최대 규모의 암치료 병원의 희망을 회복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함께 신성장 동력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스마트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사 및 축사 이후 지남규 작가의 샌드아트 공연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고신대병원 김영대 원목실장(회복)-최중순 기획조정실장(병원의 중단기 비전)-옥철호 대외협력실장(미래의학)-오경승 병원장(비전선포)이 미래비전 소개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무대에 올랐다. 고신대병원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와 함께 헬스클러스트의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의학을 선도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3.02.01.]

Focus View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팀 부울경 최초로 경구내시경근절개술 50례 달성



정경원, 김성은, 박무인 교수팀(소화기내과)은 부산울산경남 최초로 경구내시경근절개술(peroral endoscopic myotomy, POEM) 50례를 달성했다. 지난 2016년 부울경 최초로 식도 이완불능증 환자를 위한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후 식도이완불능증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식도운동질환에서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으며 뛰어난 치료 성적과 안정성, 치료 전후 식도 기능검사 결과를 국내소화기학회에 연이어 발표했다. 현재 식도운동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첨단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경구내시경근절개술 등의 시술로 치료 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식도운동질환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3.02.02.]

부산·울산 직업병 안심센터 전체 워크숍 개최



부산·울산 직업병안심센터 2023년 상반기 워크숍이 지난 9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렸다. 직업병안심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전국 6개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직업성 질병을 수집하는 기관이다. 부산·울산권에서는 고신대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 워크숍에는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부산 4개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울산동강병원, 울산중앙병원, 갑을녹산병원, 부산과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석했다. 1부는 2022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현황 및 임상과별 주요 보고사례, 2023년 운영계획 및 보고체계 개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부산·울산 직업병 안심센터 김경원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은 직업성 질환의 규모파악과 사후조치에 있다며 이전에는 발견조차 어려웠던 직업병을 협력 의료진들과 함께 부산·울산 직업병 안심센터가 찾아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직업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2023.02.09.]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만에 필리핀 해외의료봉사 실시

-필리핀 의료봉사, 스마트헬스케어 접목하여 실효성 높이는 봉사활동으로 각광받아



고신대병원은 2월 9일(목)부터 15일(수)까지 필리핀 두게가라오, 라굼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필리핀 두게가라오 지역은 고신대병원이 10년 이상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곳으로, 단순 의료봉사활동을 넘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의료봉사팀에는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하여 옥철호 대외협력실장, 김영대 원목실장,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 산부인과 윤항구 교수와 고신의대 6명과 간호대 11명의 학생이 동행하였다.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뿐 아니라 간지 엑스레이 검사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와 모니터링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5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교직원들에게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해 의료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올해 안에 5~6회 더 의료봉사 팀을 구성하여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2.15.]

Focus View

'중증응급구역 개소' 통해 응급의료센터 인프라 확충



고신대병원이 응급의료센터 내 '중증응급구역'을 개소하였다.

중증응급구역은 중증으로 분류된 응급환자 6병상을 통해 전용구역을 세심하게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중증과 경증의 치료 공간 분리를 통해 환자들에게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 관찰을 위한 시야확보와 치료 동선이 짧아지는 이점을 통해 환자를 더욱 세심히 돌볼 수 있다. 계여곤 응급의료센터장은 "중증환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도움주신 병원 당국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정부에서 20곳의 중증응급센터를 늘리기로 발표한 만큼 고신대병원이 중증응급센터의 역할을 갓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7.]

제15회 간소화기내과 연수강좌 성료



고신대병원은 2월 18일(토) 부산역 아스티호텔 2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원의를 위한 '제15회 간소화기내과 연수강좌'를 열었다. 고신대병원 간소화기센터는 매년 개원의를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열어 개원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소화기질환을 중심으로 최신 치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연수강좌는 흔하지만 판단이 쉽지 않은 증례를 토의를 통해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80여명의 간소화기내과 개원의들의 호응을 받았다. 첫 번째 세션은 간체담도 색선으로 간내과 박현준 교수가 지방간에 대하여, 서광일 교수가 만성 B형·C형 간염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이어서 양성 담낭질환에 대해서는 이정욱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두 번째 세션은 위장관 세션으로 소화기내과 정경원 교수(위장관 상피하 종양), 박선자 교수(대장암), 문 원 교수(염증성장질환)가 차례로 강의를 진행했다.

[2023.02.20.]

'정보보호의 날' 선포식 개최



고신대병원은 6일 오전 '정보 보호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병원 이용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호 규제 준수 및 실천 강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 보호의 날 선포식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3월 첫 째주 월요일을 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은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와 보안사고 피해 사례 유형 및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 대응절차를 교육해 병원 이용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고신대병원은 병원이 취급하는 정보에는 민감한 정보가 많은 만큼 보안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정보 보호에 관한 교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 안전한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03.07.]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3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서광일			●		●	●	●	●			간염,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		●			●		●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배수현										●	심장내과 일반진료
내분비내과 990-6102	권수경		●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해외연수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 암
	박태훈	●			●					●		갑상선, 내분비(당뇨)질환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금 오전진료는 신환, 낮병동, 호스피스 상담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암,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해외연수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	●	●	●	●	●	●	●	●	●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킬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응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손민영	●	●	●	●	●	●	●	●	●	●	소화기 일반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제훈	●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김지원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혈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	●			●	●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	●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	●	●					●		신장질환
	박병화										●	신장내과 일반진료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체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두경부암,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옥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해외연수										당뇨발, 피부암, 하지재건, 두경부재건
	김홍일					●	●				●	미용, 수부외과, 미세수술
	김윤수			●	●					●		유방 재건 및 유방 성형, 체형 성형(비만), 흉터 성형, 안면 외상
	임호영							●				성형외과 일반진료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이재현	●		●	●				●		●	근골격계 및 스포츠 재활, 척추 및 관절질환, 어깨통증, 허리통증, 목통증, 외상성 뇌손상, 삼킴 장애, 호흡재활, 초음파유도 중재시술, 신경근골격 초음파, 척추중재시술
정형외과 990-6130	손정환										●	슬관절부병변, 관절염
	권영호	●					●					미세수술, 수부병변
	정소학			●				●				근골격계종양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				●			●			녹내장, 백내장, 각막각질환
	김창주	해외연수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	●			●	●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원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	●			●	●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 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배설연									●	●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핵의학과 990-6660	전성민		●				●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희영								●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						●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	●				●	●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				●				●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이윤나			●	●						●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기분장애 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김현석			●	●			●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기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	●					●	●	부인암, 종양,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	●			●		●				부인암,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고위험 산모
	오영림	●					●	●	●			부인질환, 산과
	윤향구			●						●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로봇수술
	강태경		●				●		●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김은택				●	●				●		부인 질환, 부인 종양, 부인 암, 로봇수술, 내시경 수술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	●					●				식도, 위장,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기질종양),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3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두경부, 갑상선내분비외과 990-6113	김구상				●						●	갑상선암, 갑상선양성질환, 고주파열치료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양송이	●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이지은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최소절개수술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	●			●	●		●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고주파열치료, 로봇경구갑상선 수술 ※ 경험자 클리닉 : 수 오후※
	최진혁	해외연수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종양성형클리닉
	정성의			●	●			●		●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좌선영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				●				대장, 직장암,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현	●	●			●	●		●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					●	●	대장, 탈장, 복강경 로봇수술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990-6112	신동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해외연수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체클리닉
	문형환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지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응급외과 990-6359	정주원				●							응급외과
	이철민								●			응급외과
	김영식						●					응급외과
알레르기내과 990-6152	김희규	●	●					●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최길순			●	●					●	●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지현					●	●			●		알레르기내과 일반진료
비뇨의학과 990-5078	류현열	●				●						오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 성		●	●				●	●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					●				●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해외연수										로봇수술, 결석
	서원태				●					●		비뇨기계 일반질환
흉부외과 990-6127	박성달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김종인		●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하지정맥류, 흉부외상
	조성호				●	●	●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이해영	●	●					●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성인심장질환, 흉부외상
	고택용						●		●	●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부외상, 일반흉부
	이상호										●	흉부외과 일반진료
신경과 990-6106	유봉구	●		●	●	●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		●	●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	●	운동장애, 파킨슨
	허소영		●				●	●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이진형			●			●			●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990-6136	이강대	●						●		●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				●	●				이명, 어지럼증, 삼출성 중이염, 만성중이염, 난청, 인공와우이식, 산재
	권재환				●	●				●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첼로이드, 중이 진주종 비파:촉농종, 비성형, 안면재건, 안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형신	해외연수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주연		●	●					●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클리닉
	김영준					●					●	두경부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유태현								●			일반 비과 질환, 레이저 클리닉
	김서빈										●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소아청소년과 990-6123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자폐증 출생아, 지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반출산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amble, 배꼽 육아종),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이정현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장애)
	연구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		●	●				●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전공의				●				●			소아청소년과 일반진료
신경외과 990-6124	조혁래	해외연수										뇌종양, 두개저종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	●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위외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	●			●	●	뇌혈관 질환,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간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피부과 990-6146	서기석									●	●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박종빈				●	●			●	●		피부과 일반질환, 피부종양, 알레르기피부질환
	권도익	●					●			●	●	피부과 일반진료, 피부 레이저
	전공의	●	●	●	●	●	●	●	●	●	●	피부과 일반질환
일반내과 990-6359	길송이	●	●	●	●	●	●	●	●	●	●	일반내과 일반진료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	●		●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김윤경	●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관절초음파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이진영											감염내과 일반질환
	전민지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진 솔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치과 990-5150	김희진	●	●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감염,외상,임플란트,매복치,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	●	●				●	●	치과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	●				●	●	●			치주과 일반진료
직업환경의학과의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빈부귀천을 넘어 '생명'은
오직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믿음**
사랑은 베풀수록 커진다는 **진리**

이 '믿음'과 '진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숨 쉬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